

김세환 시조에 나타난 노년기, 질병 속 希求

이 순 희*

- I. 서론
- II. 치매 속 회상 회구
- III. 친식을 통한 통찰 회구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김세환 시조를 대상으로 노년기 질병에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이 다름을 밝히는 데 있다. 김세환 시조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치매』에 나타난 어머니는 자아 통합을 하지 않은 까닭에 삶의 질이 떨어졌다. 치매를 앓기 전까지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恨과 그리움 해소의 회구가 있었지만, ‘자아 통합’을 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이어서 치매를 앓게 된다. 치매를 앓게 되면서恨과 그리움의 해소 회구는 서러움, 두려움, 분노, 슬픔, 외로움 등으로 표출되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 『바람꽃』에 나타난 김세환 시인 자신은 친식을 앓지만, 회구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 順命의 자세, 자기 성찰, 감

* 경북대 강사 / sunzzang9321@hanmail.net

사 정서, 창작의 산실 등이 그것이다. 김세환 시인은 끊임없이 ‘자아 통합’을 한 결과이다. 천식을 ‘동반자’ 또는 ‘친구’로 여기면서 천식 앓는 것을 順命의 자세로 자기 성찰과 감사의 기회로 여기며 절실한 시조 창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 주제어

김세환 시조, 자아 통합, 노년기 질병, 관점, 삶의 질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김세환 시조에 나타난 노년기 질병의 양상을 살펴본 후 질병을 겪으면서 환자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분석하고 노년기 질병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삶에 있어 개개인의 긍정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빠르게 증가하여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한다.¹⁾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한국문학에서도 노인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문제²⁾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문학작품이 사람의 사회적 삶을 반영하는 사회의식의 한 형태로서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예술인만큼 그것을 낳은 환경·문화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³⁾ 노년기 작가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노년문학’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어령을 필두로, 김병익, 천이두 등이

1)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검색일: 2022. 1. 2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302&cid=43667&categoryId=43667>

2) 노인문제는 사회제도적 차원의 복지문제나 정년연장과 재고용, 연금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노년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식세대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인문학적 차원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사, 2012, 7쪽).

3) 최유찬·오성호,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사, 1994, 24쪽.

S. N. 그랩스타인/박철희·김시태 역, 『사회학적 방법』, 『문학의 이론과 방법』, 이우출판사, 1984, 116쪽.

4) ‘아동문학’은 ‘아동’이란 존재의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고, ‘여성문학’은 학적 범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하지만, ‘청소년문학’이나 ‘성인문학’처럼, 인생의 특정 시기를 지칭

노년의 작가에 의해 창작된 노년소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⁵⁾

노년문학의 봄이 소설에서부터 시작된 만큼 소설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조 분야에서는 그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고시조를 대상으로 노년의 정서를 살펴본 작품으로 김상진의 「時調에 나타난 ‘老年’의 考察」(『어문론집』69, 2017.), 임재옥의 「시조의 노년(老年) 표현법」(『돈암어문학』36, 2019.) 등이 있다. 김상진의 「時調에 나타난 ‘老年’의 考察」은 고시조에 나타난 노년 의식 연구로 ‘노화한 현실의 탄식’, ‘지나간 젊음의 열망’, ‘타인을 향한 경계’ 등으로 표현되어 노화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재옥의 「시조의 노년(老年) 표현법」에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관점에 따라 시조에 등장하는 늙음을 한탄류로 표현되기도 하고 풍류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현대시조를 대상으로 노년 의식을 살펴본 논문으로는 박영우의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의식 연구」(『국어문학』53, 2012.)가 있는데 박영우는 이태극이 시조에서 ‘자연 심상을 통한 노년 의식의 형상화’, ‘채움을 지향하는 그리움의 공간’, ‘자아성찰을 통한 죽음의식의 육화’를 도출해냄으로써 노년 의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는 노년기 질병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시조의 선행연구에서 질병을 다룬 연구는 없다. 노년기에 있어 질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⁶⁾

하는 용어를 단 ‘노년문학’이 하나의 독립된 문학범주가 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용어에 대해 말하자면, ‘노인’에 비해 ‘노년’이 인생의 특정 단계를 뜻하므로 개념의 폭이 넓고, 이런 소설들을 지칭하는 영어표현도 ‘the old man fiction’이 아닌, ‘the old age fiction(또는 novel)’이기에 ‘노년문학’이란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어문론총 제6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6, 221쪽 참고.) 한국의 경우 노년문학에 대한 연구는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동안 ‘노년학적 소설’, ‘노인성 소설’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노년소설로 통용되고 있다.

- 5) 이어령, 「현대문명과 노인」, 『신상』, 1970년 가을호.
김병익, 「노년소설: 침묵 끝의 소설」, 『한국문학』, 1974년 4월호.
천이두, 「원숙과 패기」, 『문학과지성』, 1976년 6월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질병 증가는 노인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차원의 복지문제나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⁷⁾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불어 노년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노화나 질병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남권 시조시인인 김세환 시인⁸⁾의 시조 가운데 질병을 다룬 시조집인 『어머니의 치매』와 『바람꽃』에 나온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노년기 질병⁹⁾의 양상을 살펴보고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삶이 가능한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장에서는 치매 속 회상 회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비록 치매를 앓고 있지만, 화자 내면에서 회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천식을 통한 통찰 회구를 살펴봄으로써 비록 천식을 앓고 있지만 개별적인 관점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작품에 드러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에릭슨의 ‘자아 통합’ 개념¹⁰⁾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
- 6) 노년 문학의 등장은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본 논문의 목적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당대 노년의 자아 성장에 있으므로 당대적인 맥락의 진단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 7)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17쪽.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노인은 끊임없이 나이의 흔적과 싸우는, 소외된 타자로 전락하였다.
- 8) 김세환 시인은 경남 밀양에서 1946년에 태어났다. 대구 영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후 대구 남산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대구 남산고등학교 교사 시절 지도한 시조동아리(한얼, 울제)에서 많은 시조시인들이 배출되었다. 1975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으며 시집으로는 『가을은 가을에게 하라』(1990), 『어머니의 치매』(2002), 『바람꽃』(2021) 등 다수가 있다. 수상으로는 한국시조문학상(1991), 대구시조문학상(2002) 등 다수가 있다. 김세환 시인의 시비가 대구 도동에 소재한 도동시비동산에 마련되어 있다.
- 9) 본 논문에서는 노년기 질병인 치매와 천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0) 에릭슨의 ‘자아 통합’ 개념은 II장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치매 속 회상 회구

본 장에서는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어머니의 치매』¹¹⁾ 분석을 통해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적 대상인 어머니의 치매¹²⁾ 속 회상 회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치매 속 회상 회구는 과거 기억 속에서 어떤 부분을 통합¹³⁾하거나 유지하고 싶어하는 현상으

11) 김세환, 『어머니의 치매』, 북랜드, 2002. 이하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한다.(이 책은 문예진흥원 2002 우수 문학 도서로 선정되었음) 단시조 79편으로 구성.

12) 이진우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79쪽.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 연속 선상에서 현재의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한다. 즉 기억은 세계를 지각하고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자아의식의 형성 및 보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개인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치매』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과거의 행적을 드문드문 기억할 뿐 현재 자아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어머니의 치매·3>에 그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어머니는 현실 감각을 잃고 외아들인 화자를 오히려 착각한다.

때깔 고운 모시 적삼
가다가다 뜯어놓고

맛깔스런 손맛 잃어
분노는
식욕도 잃네

퇴근길 와락 달려와
“오빠”라며
안긴다. (<어머니의 치매·3>, 15쪽)

13) 박수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상치료의 심리사회적 효과: 문헌 고찰」,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 3권 1호,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2013, 36쪽.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이론을 주장한 에릭슨은 노년기에 성취해야 할 마지막 심리 사회적 과제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아 통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노년기의 자아 통합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아 정체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회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부정적 관념과 심리적 문제를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수용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로 이러한 증상은 치매 환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비켜 갈 수 없는, 치매 환자의 증가가 예상¹⁴⁾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에게 이러한 분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치매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고 좀 더 예각화 하여 치매 속 회상 회구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치매 환자가 어떠한 점에 고착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개 치매 환자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된다. 남편, 딸, 아들, 며느리 등이 작품을 표현하게 된다. 치매에 걸린 인물이 기억력의 퇴화와 인지기능의 상실로 인해 표현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매를 관찰하는 초점자나 기록하는 화자에 의해 표현되는 내용은 치매에 걸린 인물의 증상과 그에 따른 돌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환자를 돌보면서 변해가는 인물의 내면이다.¹⁵⁾ 이 시조집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어머니의 외아들이다. 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어머니의 恨, 둘째, 어머니의 그리움, 셋째, 화자인 아들의 자책감¹⁶⁾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장에서는 ‘어머니의 恨’과 ‘그리움’에 집중함으로써 ‘치매 속 회상 회구’를

있다. 또한, 과거의 유쾌한 경험을 기억해내어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년기 우울과 같은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14)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61958> | 하이닥(접속일자: 2021. 01. 28.)

전 세계 전문가들은 제3세계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서방국가들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치매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약 1억 5,300만 명이상이 치매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한민국도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유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814만 4,674명 중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로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 286쪽.

16) 화자인 김세환 시인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을 거듭하고 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분석하도록 하겠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기 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분석된다.¹⁷⁾ 우울증은 대개 치매로 이어진다.¹⁸⁾ 우울증 단계에서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 ‘자아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치매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1. 恨의 해소 회구

‘어머니의 恨’을 다시 세분화하면, 서러움, 두려움, 분노, 외로움, 슬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치매를 앓기 전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치매로 인해 묶어두었던 이성의 끈이 풀리면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표현¹⁹⁾하지 못했지만, 내면에는 통합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希求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면 통합은 곧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다.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어머니의 치매』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恨’은 지금까지 내면에서 통합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격랑(激浪)은 온화한
관음의 얽은 미소로 가린

17) “아버님 떠나신 후 십 년 동안 홀로 외로움 속에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중략)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게 했다. (『어머니의 치매』 92쪽) : 아들인 김세환 시인은 지극 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으나 어머니 자신이 ‘자아 통합’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18)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8> 검색일: 2022. 3. 10.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사후 환자의 뇌부검 연구를 통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명한 최신 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Biological Psychiatry' 2021년 12월 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우울증과 관련있는 SNP가 결국 추후 알츠하이머 발병에도 관여한다는 중요한 증거가 관찰된 것이다.

19) 여기서 표현의 욕구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지워졌다
다시 돌아나는
몇 장의
흑백사진

당신의
억센 삼베적삼 울이
뜰어지고 있느이다. (<어머니의 치매 · 17>, 29쪽)

<어머니의 치매 · 17> 초장은 아들인 화자가 기억하는 치매를 앓기 전 어머니의 모습이다. 중장은 현재의 어머니 모습이다. 중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을 잇는 역할을 하는 장으로 치매를 앓다가 가끔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지만 이내 그 모습은 ‘지워지고’ 다시 치매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중장에서는 ‘억센 삼베적삼 울’이 뜰어지는 것처럼²⁰⁾ 어머니의 성정이 거칠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치매를 앓기 전에는 이성으로 마음속에 내재 되어있는 본능을 누를 수 있었지만, 치매를 앓으면서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내재된 恨을 세분화하면 ‘서러움’, ‘두려움’, ‘분노’, ‘슬픔’, ‘외로움’으로 나누어진다.

1) 서러움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어머니의 치매』에서 ‘서러움’이 드러난 작품은 <어머니의 치매 · 1>, <어머니의 치매 · 5>, <어머니의 치매 · 9> 등이다. 어머니는 서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러움으로 상징되는 물건이나 감정을 쉽 없이 찢거나 자르거나 묶었다 푼다. <어머니의 치매 · 1>에서는 ‘질곡의 서러움 찢었다 다시 쓰고’라는 대목에서 서러움이 스며 나오고 있다. <어머니의 치매 · 5>에서는 ‘설움 묶은 보따리²¹⁾마다/풀었다 다시

20) 실제로 “치매 상태인 어머니께서 삼베옷을 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21) 우리 어머니는 평소 조그만 보따리를 잘 싸셨어요.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묶고'에 서러움이 묻어 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풀고 묶듯 끊임없이 서러운 기억을 묶었다가 다시 푸는 것이다. <어머니의 치매·9>에서는 '길고 짧은 서러움/조각조각 잘라 놓고'라는 대목에서 화자는 역시 어머니의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세 작품 가운데 한 편을 골라 전문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서러움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정갈턴 당신의 모습
산발한 광인이 되어

설움 묶은 보따리마다
풀었다 다시 묶고

묻어온
기억의 한 권
찢었다 다시 잇고.<어머니의 치매·5> 17쪽)

<어머니의 치매·5>에서는 슬픔²²⁾을 '찢었다 다시 잇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초장에서는 치매 전, '정갈턴' 어머니의 모습과 치매 후, '광인이 된' 어머니를 비교하고 있다. 성격의 변화를 묘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설움을 묶었다 풀었다' 하거나 '찢었다 다시 잇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아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두려움

'두려움'이 드러난 작품으로는 <어머니의 치매·2>와 <어머니의 치매·48>이 있다. <어머니의 치매·2>에서는 '운종일' '두려움에 쫓겨' 집안을 뛰어다니는 어머니²³⁾의 모습을 그렸다. <어머니의 치매·48>에서

27.)

22) 화자인 아들은 구체적인 슬픔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는 한평생 눈감고도 찾아다녔던 집으로 가는 길이 ‘두려움으로 다가와’²⁴⁾ 집을 지척에 두고도 피범벅이 되도록 헤매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치매란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증후군이며 이로 인한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계산 능력, 학습 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⁵⁾ 치매의 주 증상은 기억 장애이다. 이것은 모든 치매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며, 기억 장애로 인하여 치매 노인들은 의사소통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약속시간이나 사람의 이름, 주거지 등을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²⁶⁾

또한, 치매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성격 변화이다. 치매 발병으로 이전에 타인을 배려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활동적이던 사람이 냉담해지고, 활기가 없어지며, 발병 이전보다 자주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고 완고해지는 등 부적절한 성격 행동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치매 증상으로 점차 나타나는 것이다.²⁷⁾ <어머니의 치매·2>에서도 이러한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

막차를 놓쳐 버린
철새의 속성처럼

위층 아래층 거친 파도 휘몰아가며

온종일 종종걸음으로
두려움에 쫓긴다.<어머니의 치매·2>, 14쪽

23) 뛰어다닐 때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아내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24) 집을 찾을 수 없다는 자신감 상실에서 비롯된 두려움

25) 한경희 외 9명,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2002, 31쪽

26) 송영희,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5쪽.

27) 권중돈 외 5명, 『치매와 가족』, 학지사, 2002, 335-341쪽 참조.

열사(熱沙)의 태양 같은 올분
이성도 무너뜨리고

맥없이 허물어진
수십 년 올곧은 뼈대

서릿발
카랑하던 맘종부
애증의 보를 깊고 있다.(〈어머니의 치매·6〉, 18쪽)

〈어머니의 치매·2〉에서 시적 대상인 어머니는 뭔가에 쫓겨 불안해하며 온종일 헤매고 다니신다. 그런데 〈어머니의 치매·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인 김세환 시인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올곧은 뼈대’로 문중의 많은 일을 척척 해결해내시던 ‘서릿발 카랑하던 맘종부’였다. 그러나 치매를 앓고 있는 시적 대상인 현재의 어머니는 너무나 나약한 어린아이가 되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성정을 보임으로써 뚜렷한 성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3) 분노

‘분노’가 드러난 작품으로는 〈어머니의 치매·3〉, 〈어머니의 치매·6〉, 〈어머니의 치매·8〉, 〈어머니의 치매·11〉, 〈어머니의 치매·12〉, 〈어머니의 치매·17〉, 〈어머니의 치매·18〉 등이 있다. 〈어머니의 치매·3〉에서는 ‘맛갈스런 손맛 잃어/분노는/식욕도 잃네’라고 하여 지칠 때까지 밤을 지새우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어머니의 치매·6〉에서는 ‘열사의 태양 같은 올분’이라 하여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치매·8〉에서는 ‘생살 비집고 나온/세월의 굳은 종양’으로 표현하여 치매를 앓기 전에 풀지 못한 분노가 종양(치매)으로 돌아났다고 표현하고 있다.²⁸⁾ 〈어머니의 치매·11〉에서는

28) 이 부분에서 화자는 본인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 생겨난 병이라고 자책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잠들지 않는/저 분노’에서 <어머니의 치매·12>에서는 ‘속내는/다시 끓어오르고’에서 <어머니의 치매·17>에서는 ‘당신의/억센 삼배적삼 울이/떨어지고 있느이다.’에서 <어머니의 치매·18>에서는 ‘소다 먹으며/삭인 가슴’에서 각각 어머니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어머니의 치매·12> 전문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분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월도 절이 삭아 숯덩이로 굳었어도

멈춰선
어느 한 시각
속내는
다시 끓어오르고

숨가쁜
긴 대질 심문에
이 밤도
초죽음이다.<어머니의 치매·12>, 24쪽)

초장에서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에서는 오랜 세월이 세월은 ‘절이 삭았’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삭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에서는 ‘속내는/다시 끓어오른다.’ 밤새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화자도, 어머니도 ‘초죽음’ 상태가 된다. 여기서 나타난 분노의 감정도 내적 통합이 되지 않아 세월이 흘러도 ‘절이 삭지’ 않고 ‘다시 끓어오르는 것이다.’

4) 슬픔

‘슬픔’이 드러난 작품으로는 <어머니의 치매·13>, <어머니의 치매·19>, <어머니의 치매·25>, <어머니의 치매·35>, <어머니의 치매·55>, <어머니의 치매·59>, <어머니의 치매·60> 등이 있다. <어머니의 치매·13>에서는 ‘속사정 알 수 없어도/당신의/그 슬픔은’에 어머니

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넣어두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우울증과 연결된다. <어머니의 치매·19>에서는 ‘달빛 찢어가는/저 슬픔은/어디일까’라고 하여 화자인 아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지쳐가는 시인의 마음도 종장에서 드러난다. <어머니의 치매·25>에서는 ‘수면제 몇 알 정도로/지귀의 슬픔을 재울 순 없지’에서는 아들인 시인은 어머니 슬픔의 원인을 어머니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지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적 화자인 아들이 귀신의 탓으로 돌릴 만큼 어머니는 자주 원인 모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치매·35>에서는 ‘목놓아 울음 우는 이승의 관절 꺾는 슬픔’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머니는 친정 집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그 그림움은 슬픔으로 변모된다. <어머니의 치매·59>에서는 ‘질척이며 젖는 슬픔/걸음마다 패어지는’²⁹⁾에서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머니의 치매·60>에는 ‘낙인으로 남을 슬픔/피눈물로 묻습니다.’에 어머니의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 이 시조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땅에 묻으며 쓴 시조이다. 어머니의 시신을 묻으며 김세환 시인은 생전의 어머니 슬픔도 함께 묻었다. <어머니의 치매·13> 전문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슬픔을, 깊이 있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속사정 알 수 없어도
당신의
그 슬픔은

목덜미 틀어 잡혀
숨막히는 내 고통만으로

마음껏 때려 주세요.
울분 다
태울 때까지.(<어머니의 치매·13>, 25쪽)

29) 어머니와 신천득을 걸었어요. 그때의 정황에 어머니의 슬픔을 담아 표현했어요.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어머니의 치매·13> 초장에서는 어머니의 슬픔³⁰⁾의 근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화자는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목덜미 틀어잡는’ 것은 실제 상황이기도 하고 화자의 심정이기도 하다. 화자의 어머니가 밤새워 집안을 뛰어다니는 것을 화자가 저지하면 어머니는 아들의 목덜미를 틀어쥐며 울분을 토했다. 중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어머니의 울분(슬픔이 바탕이 된 울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어머니에게 저항하지 않고 목덜미를 맡긴다. 어머니 슬픔의 원인을 화자는 인터뷰³¹⁾에서 어머니 몸 안에 있는 ‘지귀’ 때문이라 했지만, 이 또한 그동안 축적해온 슬픔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분노에서 벗어나고 싶은 希求가 있다.

5) 외로움³²⁾

‘외로움’이 드러난 작품으로는 <어머니의 치매·10>, <어머니의 치매·47> 등이 있다. <어머니의 치매·10>에서는 ‘모두 떠나가고 외로움만 가득한 동지’에서 시적 대상인 어머니의 외로움³³⁾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외로움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저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을 쳤을 뿐이다. <어머니의 치매·47>은 전문 분석을 통해 어머니가 겪은 외로움은 살펴보기

30) 앞에서 표현했지만, 화자는 어머니를 자주 슬프게 하는 것은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지귀’(<어머니의 치매·25>)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귀’는 ‘귀신’의 의미로 쓰였다고 말했다.

31) 화자의 말.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32)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치매이며,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감이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이성훈 외 6, 「독거노인에서 외로움이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 29권 9호, 대한가정의학회, 2006, 69 5쪽.

33)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외로움이 병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아내와 함께 휴가를 떠났지만, 어머니와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녀왔다는 인사만 하고 소소한 일상의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에 와서 너무 후회됩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로 하겠다.

피불이 끼리끼리 서둘러 떠나간 아침

외로움 보따리에 싸
찾아 나선 불안한 미로

한가위
텅 빈 거리에
내팽개쳐진
어머니. (<어머니의 치매·47>, 59쪽)

<어머니의 치매·47>은 단시조이다. 시인은 연과 행 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초장은 한 행이면서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장을 한 연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장은 4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고 있다. 초장에서 명절 후 피불이들이 모두 떠난 정황이 묘사되고 있다. ‘끼리끼리’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어머니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화자인 아들이 잠시 방심한 사이 어머니는 조그만 보따리를 싸서 들고 집을 나가버린다. 그러나 어머니는 피불이들을 찾기는커녕 바로 대문 앞에서 길을 잃고 미로 속을 헤민다.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을 모아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전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즉 한가위 피불이들이 떠나자 어머니의 외롭음은 더욱 깊어졌고 이러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텅 빈 거리에 미아가 됨으로써 더욱더 외로워졌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노년기 외로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아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통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³⁴⁾

34) 박수현, 앞의 논문 참조

2. 그리움 해소 회구

‘그리움’이 드러난 작품으로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이다. ‘어머니의 恨’과 달리, ‘어머니의 그리움’은 함께 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행복이 유지되지 않아 내면 갈등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하는 생활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다. 그리움은 상실감을 불러오고 상실감은 우울증과 연결되며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릭슨은 ‘자아통합감’을 제시한다. ‘자아통합감’은 지나온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보하는 것이다.³⁵⁾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친정을 떠올리면 따라 나오는 어머니의 젊음도 이미 지나간 과거임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때 갈망의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남편에 대한 그리움

먼저 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는 <어머니의 치매·20>, <어머니의 치매·23>, <어머니의 치매·24> 등이 있다. <어머니의 치매·20>에서는 ‘시아비 하늘로 모신/어쩌면 간절한 신앙’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³⁶⁾이 나타나 있으며 남편과 함께 늙어가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편은 이미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

35) 박수현, 앞의 논문, 36쪽 참조

36)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글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2001년 7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69세였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그리움과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머니 탓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잘 건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다. <어머니의 치매·24>에서는 ‘꿈의/어느 한 자락/생시 같은 꿈이 있다면/돌아갈 그날까지/망부가라도 부를 텐데’라고 하는 초장과 중장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다. 어머니께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남편을 잃은 슬픔을 노래로서 자아 통합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므로 어머니는 지금도 남편인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의 상황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움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를 수 없는 바람에서 벗어나고 싶은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 전면을 인지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자아 통합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치매는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어머니의 치매·23> 전문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밤 태엽 풀어지는 소리
긴 고요만 감으시더니

꿈 같은
꿈속에서
끝내 터뜨리는 서러움

“아무리 죽었다 해도 한 번씩은 찾아와야지”(〈어머니의 치매·23〉, 35쪽)

<어머니의 치매·23>은 단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장은 1연 2행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중장은 1연 3행으로, 종장은 1연 1행으로 배치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밤이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치매를 앓으면서도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끝내 서러운 눈물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아픈 심정이 나타나 있다. 종장에서는 대화체로 마무리하고 있다. 어머니가 평소 하시던 말씀, ‘아무리 죽었다 해도 한 번씩은 찾아와야지’라고 하는 말에서 그리움이 깊어 원망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작품으로는 <어머니의 치매·4>, <어머니의 치매·35> 등이 있다. <어머니의 치매·4>에서는 ‘가슴을 쓸어가던 유년의 대바람 소리/발 묶인 친정 길 아침마다 서두른다.’에서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³⁷⁾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실존하지 않고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추억이 된 것이다. 어머니의 고착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상실감은 현실을 인정하고 추억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음으로써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정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치매·35> 전문을 통해 친정집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외가 도곡 안마당이 수목으로 번져나면

목놓아 울음 우는 이승의 관절 꺾는 슬픔

어머니 간절한 그리움이 유년으로 피는 꽃밭. (<어머니의 치매·35>, 47쪽)

<어머니의 치매·35> 역시 단시조로 쓰여 있다. 초장, 중장, 종장을 1연 1행으로 배치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어머니의 머릿속에 외가의 이미지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정황을 그리고 있다. 중장에서는 그 그리움에 견딜 수 없어 어머니는 관절을 꺾는 듯한 아픔을 담아 목놓아 운다. 종장에서는 초장, 중장을 정리하여 마무리를 하고 있다. 즉,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은 곧 유년의 꽃밭이기도 하다. 유년시절로 돌아가 마음껏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이를 수 없는 소망이기에 상실감은 크고 그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져 치매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37) 친정집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외갓집을 찾아 갔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며 나의 유년 시절이기도 한 그 시절에는 외갓집에는 대밭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대바람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사람도 집도 흔적조차 없었어요.(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Ⅲ. 천식을 통한 통찰 회구

본 장에서는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바람꽃』³⁸⁾ 가운데 노년기 질병에 해당하는 ‘4부 천식일기’³⁹⁾ 분석을 통해 질병인 천식을 앓으면서 그 가운데서 통찰을 얻고자 하는 ‘천식을 통한 통찰 회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세환 시인은 치매를 앓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5년 후인 2006년부터 천식⁴⁰⁾을 앓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앓고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 가운데 천식은 임상적으로 보통 가역적인 기도폐쇄 증상, 기도의 과민반응 및 염증소견이 관찰될 경우 기관지천식환자로 진단한다. 환자들은 평소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도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난다.⁴¹⁾ II장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치매』 시조집의 주체인 어머니는 자아 통합⁴²⁾을 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III장에서 살펴볼 『바람꽃』 시조집의 주체인 아들 김세환 시인은 자아 통합을 잘 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김세환 시인은 천식이라는 질병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아 통합’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조집 『바람꽃』에 나타난 시적 자아인 김세환 시인의 자아 통합 방법은 ‘順命의 자세 회구’, ‘자기 성찰 회구’, ‘감사 정서 회구’, ‘창작의 산실 회구’ 등으로 나타난다. 자아 통합으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회구를 작품 속에서 분석

38) 김세환, 『바람꽃』, 북랜드, 2021. 이하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한다.

39) 『바람꽃』 가운데 ‘4부 천식일기’는 모두 22편의 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단시조가 13편, 2연 연시조가 8편, 3연 연시조가 1편이다. 이 부분에 집중된 것은 『바람꽃』에 실린 전 작품 77편 가운데 22편이 실린 ‘4부 천식일기’가 노년 질병에 관한 시조작품이기 때문이다.

40) 어머니께서 2001년에 돌아가셨고 내가 퇴직을 1년 앞두고 2006년도부터 천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고 아침 보충수업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41) 오현숙, 「노인 기관지 천식 환자의 자가관리」, 『한국노년학연구』 9권 0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0, 20쪽.

42) ‘자아 통합’은 II장에서 다룬 내용으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아 정체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박수현, 앞의 논문, 36쪽)

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노년기에 이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 順命⁴³⁾의 자세 회구

順命의 사전적 의미는 ‘天命에 순종함’으로 나와 있다. 김세환 시인은 자신의 몸에 기거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천식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동반자’ 또는 ‘친구’로 기꺼이 견안기를 회구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늦가을 손님>, <동반자>, <평화협정>, <으름장>, <지켜온 자존>, <눈 내리는 밤>, <외출>, <바람 앞에서>, <꽃비 맞으며> 등을 들 수 있다.

<늦가을 손님>에서는 ‘좁은 속 헤집고 앉아 시작된 별난 동거’라는 부분에서 순명의 자세를 希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반자>에서는 ‘남은 날/순종 배우며/함께 지낼/동반자’에서 비록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순명의 마음 자세가 드러나 있다. <평화협정>에서는 ‘깨어진 평화협정에도 허리 굽혀 내민 악수⁴⁴⁾’에서 순명의 자세를 알 수 있다. <으름장>에서는 ‘어설픈 처방 따윈/오히려 분노의 빌미/가벼운 헛기침 몇 번 으름장을 놓는다.’에서 역시 순명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천식은 온갖 약을 다 써도 듣지 않을 만큼 다루기 까다롭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화해의 악수를 내민다. <지켜온 자존>에서는 ‘바른 등/편히 눕는 밤/기꺼이 접어두는’에서 순명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이지만 편히 눕는 행위마저 내려놓는 겸손의 자세로 천식과의 동행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43) 한때는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조를 쓰면서 알게 되었어요. 힘들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람꽃』을 발간할 수 있었어요.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44) 비록 천식에 순명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다. <눈 내리는 밤>에서는 ‘바람도/함께 지쳐 잠든/눈 내리는/거룩한 밤’에서 비록 천식으로 괴로운 밤이지만 ‘거룩한 밤’이라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다. <외출>에서는 ‘방심의 낚새에도/경고장/내미는 친구//가을빛/은혜로운 날/속정 믿고 나선 외출’에서 매사에 조심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바람 앞에서>에서는 ‘알미운 그 손길도 이따금 그리운 것/어느 날/웃으며 만날/다정한/바람 한 점’에서 순명의 자세를 회구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바람 앞에서>에서 순명을 읽을 수 있는 까닭은 이 바람은 천식을 불러오는 매개체로써 바람이 불어오면 기침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시인은 말한다. 그러한 바람이지만 시인은 다정하다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천식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명의 자세 회구를 주제로 하는 작품 가운데 한 편을 골라 전문을 살펴봄으로써 시인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지쳐 내친 내 명줄
조였다 풀었다 해도

미움의 맨살 비비면
속정이 돋나보다.

남은 날
순종 배우며
함께 지낼
동반자. (<동반자>, 70쪽)

<동반자>에서는 20년 가까이 천식을 앓으면서 주어진 운명인 천식에 순종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단시조를 3연으로 배치해 놓은 이 작품에서 천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초장에서는 천식이 온 순간 겪게 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비록 시인을 괴롭히는 천식이지만 순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

고 ‘속정으로 돋’아나고 있다. 종장에서는 천식은 시인 자신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는 ‘동반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운명적으로 주어진 천식에 순응하고자 하는 ‘순명의 자세 회구’를 읽을 수 있다.

2. 자기 성찰 회구⁴⁵⁾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바람꽃』에서 자기 성찰 회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하얀 밤>, <파도는 잠들고>, <남은 날>, <유월의 아침>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김세환 시인은 자기 성찰을 회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얀 밤>에서는 ‘지울수록 깊어지는/부끄러운 업보의 무게’에서 천식을 업보, 즉 자신이 행한 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果報라고 생각하여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를 가진다. <파도는 잠들고>에서는 ‘어쩌면/하늘이 준/고마운 마지막 선물’에서 성찰과 감사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천식은 자신의 목숨을 쥐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고마운 마지막 선물’로 인식하고 있다. <남은 날>에서는 ‘부끄러움 돌아보라는 소중한 하늘의 뜻’에서 시인의 자기 성찰 회구를 읽을 수 있다. 천식을 앓지 앓았다면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인데 천식을 앓음으로 해서 크게 잘못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소중한 하늘의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월의 아침>에서는 ‘지난날 부끄러움/육신의 병보다 깊어’에서 자기 성찰 회구를 알아차릴 수 있다. 시인은 천식이라는 육신의 병보다 자신이 지난날 행한 果報가 더 부끄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기 성찰 회구를 주제로 하는 작품 가운데 한 편을 골라 全文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45) (천식으로) 버티기 힘든 날에는 지금까지 숨을 쉬게 한 것은 하늘의 소중한 뜻이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하라는 깊은 뜻’이기에 좌절하지 않고 남은 날까지 헛된 생각을 버리고 별빛에 피는 아름다운 들꽃으로 살기를 다짐하기도 했다. (<시인의 산문 - 바람길에 핀 바람꽃>, 116쪽)

지을수록 깊어지는
부끄러운 업보의 무게

달빛 풀어 몰래 가린
내 속내 어찌 알고

긴 몇 날
누워 잠들 수 없는
모진 형벌
하얀 밤. (<하얀 밤>, 69쪽)

<하얀 밤> 초장에서 자기 성찰 회구가 드러나 있다. 즉, 시인 자신이 행한 업보의 무게가 지을수록 깊어진다고 노래함으로써 지우는 것이 불가능함을 표현한다. 중장에서는 초장에서 나타난 업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시인이 지칭한 업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지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보로 인해 중장에서는 누워 잠들 수 없는 모진 형벌⁴⁶⁾을 받게 된 것이라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

3. 감사⁴⁷⁾ 정서 회구

46) 천식은 누우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앉아서 죽는 병’이라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47) 『바람꽃』 발간 이후 독자들에게 과분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천식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하여 감사하게 되었어요.

<바람꽃> 독자 글 1: “후반부로 갈수록 가슴 절절한 시편들이 이어지네요. 천식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시를 쓰는 원동력으로 치부하며 병을 다스리는 선생님의 투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신 작품으로 인해 독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니 이래도 되는가 하며 그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부디 옥체를 잘 보전하시면서, 이 환한 봄날만 지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꽃> 독자 글 2: “늦봄. 편편이 회한과 그리움으로 오롯한 시집,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물겨움을 넘어선 눈물겨움으로, 모든 것을 받아안은 긍정과 순응의 정서로 되새겨 읽습니다. 그러기까지 선생님의 고초가 어떠했을까요. 그 오랜 고통과 불면의 시간들,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는 시간들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바람꽃』에서 감사 정서 회구가 드러난 작품으로는 <와인 한 잔>, <보리수>, <콜록이는 나의 봄>, <유월 아침> 등이 있다. <와인 한 잔>에서 옛 스승을 걱정하여 성인이 된 제자⁴⁸⁾가 멀리서 잊지 않고 보내준 와인을 시적 화자인 시인은 마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 <보리수>에서는 천식을 다스리는 약재인 보리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 ‘작은 씨앗이라/알알이 붉게 익어/거친 숨/다독인 사랑/눈물 젖어 편한 밤.’에서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콜록이는 나의 봄>과 <유월 아침>에서는 병을 걱정하여 위로와 염려의 말을 전하는 동료 시인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다. <콜록이는 나의 봄>에서는 ‘기침 콜록이는 눈치 없던 그날 이후/문 시인 일깨워줄 때 실천 못 한 죄스러움’에서, <유월 아침>에서는 ‘이 여름 싱싱한 기쁨/마음껏 누리라는 말// 고마운 술바람처럼 가슴 깊이 적시다.’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감사 정서 회구 작품 가운데 <콜록이는 나의 봄> 전문을 분석함으로써 김세환 시인의 작품에 표현된 감사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면의 밤 뒤척이다 힘겹게 일어난 날

이 여름 싱싱한 기쁨
마음껏 누리라는 말

고마운 술바람처럼 가슴 깊이 적시다.

이른 아침 콜록이며 찾아온 푸른 그림씨

이쵸. 이제는 지병조차 동반자로 여기시는 호활한 마음자리를 엿보며, 선생님의 쾌차를 빕니다. 일곱 번째 시조집, 시 한 구절 붙들고 그 하염없는 바람길 앞에 선 술한 바람꽃들!

48)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래서 제자(윤진옥 시인)가 내 처한 힘든 현실을 알고 어렵게 보내준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기분을 전환시켜 본다. 기억이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이라, 은혜로운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다. (<시인의 산문 - 바람길에 핀 바람꽃>, 122쪽)

지난 날 부끄러움
욕신의 병보다 깊어

싱그런 그리움의 계절 이제 내겐 먼 얘기. (<유월 아침>, 85쪽)

2연으로 된 연시조이지만 행과 연 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한 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중장은 두 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한 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고 있다. 둘째 연 초장은 역시 첫 연처럼 한 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중장은 두 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한 행을 한 연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연 초장에서는 천식의 괴로움이 나타나 있다. 첫 연 중장에서는 동료 시인이 전화로 전해온 염려의 말이 나타나 있다. 첫 연 중장에서는 동료 시인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었으며 비록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스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 자아 통합을 하기 위함이다. 자아 통합은 곧 자존감 회복이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웰빙의 증진⁴⁹⁾이기도 하다. 둘째 연 초장에는 6월의 싱그러움에 대한 반가움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동료 시인의 위로가 6월의 싱그러움을 반갑게 받아들일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곧 자기 성찰의 마음이 된다. 지난날 업보로 인해 싱그러운 유월은 시인에게 먼 얘기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49) 한미리, 「노년기 부부의 감사정서, 감사표현, 지각된 파트너 반응성, 정신적 웰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34쪽에서 재인용.

감사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대상으로 축복 헤아리기 활동이나 감사편지 쓰기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감사 개입을 실시했을 때, 삶의 만족도, 웰빙, 낙관성, 자존감, 긍정정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 수준 및 걱정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현, 이창환, 2009; Digdon & Koble, 2011; Emmons & McCullough, 2003; Froh et al., 2008; Geraghty et al., 2010; Kerr et al., 2015; Killen & Macaskill, 2015; Lyubomirsky et al., 2011)

4. 창작의 산실 회구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바람꽃』에서 창작의 산실 회구를 담은 작품으로는 <들숨 날숨>, <언제나 그랬었지>, <젖은 시>, <나의 시는>, <늦가을에 서성이다>, <바람꽃>, <꽃비 맞으며> 등이 있다. 김세환 시인은 천식이 창작의 산실이 되기를 회구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천식의 고통을 승화하여 창작으로 연결한다. <들숨 날숨>에서는 ‘거친 숨/서툰 시 몇 구절/그마저도/소중한 날.//’에 창작의 산실 회구가 나타나 있다. 시인은 천식의 고통 속에서 시조를 빚고 있다. <언제나 그랬었지>에서는 ‘깊은 밤 도도하게 피는 꽃’, ‘그래도 못다 한 노래 서격이며 타는 밤’ 등에 창작 산실 회구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 ‘도도하게 피는 꽃’이나 ‘못다한 노래 서격이며 타는 밤’은 천식이면서 창작 그 자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천식의 고통이 곧 시조 창작이기 때문이다. <젖은 시>에서는 ‘허전한//빈 들에 와서//다시 쓰는//젖은 시’에 창작 산실 회구가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젖은 시’란 목숨 바쳐 쓴 시⁵⁰⁾를 말한다. 문학작품의 위대성은 ‘절실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세환 시인이 쓴 시조는 ‘절실함’ 그 자체이므로 위대한 시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실함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심금을 울린다. <나의 시는>에서는 ‘외진 언덕길을 타는 목마름으로/온몸 콜록이며 피어나는 나의 시는/하찮은 중얼거림일까/지나가는 바람일까//’에서 시인은 절실함으로 쓰는 자신의 시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 내가 쓴 시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하찮은 중얼거림이나 지나가는 바람쯤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시인이 쓴 시는 진정성 없이 美辭麗句로 연결된 시보다는 독자들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갈 것이라 분석된다. <늦가을에 서성이다>에서는 ‘미처 준비 못 한 서툰 중얼거림/한 조각 바람으로 손 흔들며 떠나가면/이른 봄 소중한 부호로 웃으며 돌아올까.’에 창작의 산실 회구가 드러나 있다. ‘미처 준비 못 한

50) 시인의 말.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서툰 증얼거림'이란 시인이 쓴 시조를 의미한다. '한 조각 바람으로 손 흔들며 떠나가면'은 시인이 작품을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함을 말한다. '이름 봄 소중한 부호로 웃으며 돌아올까'에서는 시인은 비록 떠나고 없더라도 시인이 남긴 시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호(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이처럼 시인에게 있어 시조 창작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바람꽃>은 이 시조집의 대표작품이다. '거친 발길 아래 마구 짓밟혀도//기침 콜록이는 몇 날을 지새우며//마지막/시 한 구절로 핀/나는 작은/바람꽃//' 창작의 산실 희구가 드러나 있다. <바람꽃>은 대표작품이니 다음에서 전문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꽃비 맞으며>에서는 '낮익은 꽃길 따라/웬지 어색한 설렘/조심스런 서툰 걸음/거친 숨 혈떡여도/그날의/꽃비 맞으며/봄 길을 서성이다.//' 시인은 봄⁵¹⁾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집 주변을 산책한다. 거친 숨 혈떡이지만, 시조를 빚을 수 있기에 시인은 행복하다. 이어서 <바람꽃> 전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파란 이끼처럼 반갑게 돌아나와

힘겨운
내 숨길 따라
다시 피는
나의 시.

거친 발길 아래 마구 짓밟혀도

기침 콜록이는 몇 날을 지새우며

마지막

51) 천식은 겨울에는 심하고 봄이 되면 좀 진정이 됩니다. (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시 한 구절로 핀
나는 작은
바람꽃 (<바람꽃>, 88쪽)

<바람꽃>은 2연으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역시 행 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1연과 2연 모두 창작의 산실 희구로서의 천식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1연에서는 천식을 따라 시조가 빗어짐을 노래하고 있다. 2연에서도 역시 ‘기침 콜록이는 몇 날을 지새우며’ ‘바람꽃’으로 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바람꽃이란 고산에 피는 꽃으로 보아주는 이 없어 저 홀로 피었다가 저 홀로 지는 꽃이다.⁵²⁾ 김세환 자신의 시조가 아무도 주목해주는 이 없는 그런 시조라는 것이다. 그래도 시인은 죽는 날까지 절실한 시조⁵³⁾를 쓰겠노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김세환 시인의 시조집 『어머니의 치매』에 수록된 단시조 79편과 『바람꽃』가운데 ‘4부 천식일기’에 수록된 22편의 시조를 대상으로 노년기 질병의 양상을 살펴본 후 질병을 겪으면서 환자들은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분석하고 노년기 질병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치매』에 수록된 작품은 김세환 시인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의 치매를 간호하면서 겪었던 상황을 시조로 형상화했으며, 『바람꽃』에 실린 ‘4부 천식일기’는 김세환

52) 김세환 시인의 말((김세환 시인 인터뷰 2022. 1. 27.)

53) 바른 시상을 위해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 천식에 대한 불안감이 줄게 되고 ‘천식일기’의 연작도 쓰게 되었다. 작품 한 편 한 편은 내 삶의 간절한 기도 같은 것이며 마지막 남은 나의 힘든 숨결이기도 하다.<<시인의 산문 - 바람길에 핀 바람꽃>, 113쪽)

거친 숨을 쉴 때마다 힘들었지만 시 구절을 생각하며 버텼고 마음을 진정시켰다.<<시인의 산문 - 바람길에 핀 바람꽃>, 116쪽)

시인이 20년 가까이 천식을 앓는 가운데 일어나는 정서를 시조로 형상화한 것이다.

『어머니의 치매』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는 恨과 그리움을 해소하고 싶은 希求가 있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감정 표출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은 恨으로 쌓여있었다. 유년기 친정과 먼저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해소하고 싶은 정서였으나 역시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해소하지 못한 정서는 우울증으로 고착되었다. 우울증으로 고착되기 전에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 ‘자아 통합’을 했더라면 좀 더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치매를 앓게 되면서 ‘자아 통합’을 하지 못한 마음속의 부정적 감정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서러움, 두려움, 분노, 슬픔, 외로움 등으로 표출된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에 꿋고 있는 恨과 그리움을 해소하고 싶은 希求가 있었으나 치매를 앓기 전까지 그러지 못한 까닭에 노년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께서 치매로 10년 정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후 5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을 두고 김세환 시인 역시 노년기 질병인 천식을 앓지만, 질병을 통해 회구하는 바가 다르다. 順命의 자세, 자기 성찰, 감사 정서, 창작의 산실 등이 그것이다. 김세환 시인은 끊임없이 ‘자아 통합(에릭슨)’을 한 결과이다. 천식을 동반자 또는 친구로 여기면서 천식 앓는 것을 순명의 자세로 자기 성찰과 감사의 기회로 여기며 절실한 시조 창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김세환 시인은 비록 천식은 앓고 있지만, 마음은 편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년기에 있어 필요한 것은 ‘자아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관점의 변화로 인식된다. 물론 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나 사회 제도적인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자아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관점 변화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세환 시인은 그의 시조작품에서 행 구분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있다. 시조의 단조로움을 피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의미와의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 통합’에 따른 노년기 삶의 질을 다루는 데 치중하느라 행 배열이 작품의 정서나 내용 또는 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세환, 『어머니의 치매』, 북랜드, 2002.

김세환, 『바람꽃』, 북랜드, 2021.

2. 논문과 단행본

권중돈 외 5명, 『치매와 가족』, 학지사, 2002.

김상진, 「時調에 나타난 ‘老年’의 考察」, 『어문론집』69, 중앙어문학회, 2017.3.

박수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상치료의 심리사회적 효과: 문헌 고찰」,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지』, 3권 1호,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2013.

박영우,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의식 연구」, 『국어문학』53, 국어문학회, 2012.8.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성미라 외, 「재가치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극복경험」, 『대한간호학회지』, 43권 4호, 한국간호과학회, 2013.

송영희,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

오현숙, 「노인 기관지 천식 환자의 자가관리」, 『한국노년학연구』 9권 0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00.

이성훈 외 6, 「독거노인에서 외로움이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 29권 9호, 대한가정의학회, 2006.

이진우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임재욱, 「시조의 노년(老年) 표현법」, 『돈암어문학』36, 2019.12.

한경희 외 9명,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2002.

한미리, 「노년기 부부의 감사정서, 감사표현, 지각된 파트너 반응성, 정신적 웰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최유찬 · 오성호, 『문학과 사회』, 실천문화사, 1994.

김세환 시조에 나타난 노년기, 질병 속 希求(이순희)

S. N. 그럽스타인/박철희 · 김시태 역, 「사회학적 방법」, 『문학의 이론과 방법』, 이
우출판사, 1984.

Hope in Old Age Diseases, Appeared in Kim Se-hwan's Sijo

Lee, Soon-h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at the quality of life diff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viewpoint in old age disease targeting Kim Se-hwan's Sijo. As a result of analyzing Kim Se-hwan's Sijo, the quality of life of the mother declined because she did not integrate herself. On the other hand, poet Kim Se-hwan himself developed rather as a result of continuous self-integra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old age and quality of life are affected by the individual's point of view.

keywords :

Kim Se-hwan Sijo, self-integration, disease in old age, perspective, quality of life